

『本草綱目』에 나타난 『神農本草經』과 南北朝 以前の 本草書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吳昌泳¹·尹暢烈¹ *

反映『本草綱目』上, 『神農本草經』及 南北朝以前の 本草書 研究

吳昌泳¹·尹暢烈¹ *

¹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神農本草經』又叫本經, 本草經, 神農本經等簡稱. 它的出現年代是各學者主張不相同, 而且其輯復的原始本也不同. 其書早期亡失所以明·清代醫家或金石學家輯復, 而才我們能看到斟酌本草經原貌. 可是無可奈何輯復的內容各本每不完美少有缺點. 關於『神農本草經』的研究內容方面, 最近中國和日本的學者們已經得了不少的對『神農本草經』的研究成果. 但是在韓國的情況仍然沒有這種學術結果. 所以首先鍼對『神農本草經』輯復的人物最早重視的『本草綱目』爲研究目標. 『本草綱目·序例歷代諸家本草』當中有與『神農本草經』有關的本草書籍內容中選錄 『神農本草經』, 『名醫別錄』, 『棟君采藥錄』, 『雷公藥對』, 『李當之本草』, 『吳普本草』條文. 其內容不但很有趣, 而且載比較的多的情報. 因此在此討論一些關聯本草經的問題, 能够發展進一步藥物學的成就.

Key Words : Sinnongbonchogyong(神農本草經), Myeong-uibyeonllok(名醫別錄), Yakdae(藥對), Idangjiboncho(李當之本草), Oboboncho(吳普本草)

I. 緒論

『神農本草經』은 本經 혹은 本草經 神農本經 등으로 簡略히 불리기도 한다¹⁾. 神農의 이름을 假託한 것은 이 冊의 이름을 尊貴하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²⁾. 여러 資料에 根據하여보면 本草經의 原本, 즉 오리지널 텍스트로 볼 수 있는 書籍을 確言할 수는

없지만, 最少한 本草經과 어느 정도 聯關이 있는 書籍들이 文獻에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原本인지는 確言할 수가 없는데, 『神農本草經』의 原本도 戰亂 중에 散佚 되었고, 文獻에 보이는 其他 書籍들 역시 大部分 戰亂과 비슷한 狀況이거나 또는 그 冊의 必要性이 消滅되는 등 여러 가지 理由로 亡失되었기 때문이다³⁾. 『神農本草經』으로 여겨지거나 또는 最少한 『神農本草經』과 어느 정도의 聯關性이 있어 보이는 著作은 모두 대여섯 篇으로 여겨진다. 거기에다 비슷한 時期에 나타났다고 여겨지는 非醫藥學 書籍에도 『神農本草經』에 관한 內容의 片鱗이 적지 않게 보인다. 本草經은 한사람에 의한 著作이 아니며, 한

* 교신저자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E-mail: yooncy@dju.ac.kr Tel : 042) 280-2601,
접수일(2008년 7월 31일), 수정일(2008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1)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188. “我國最早的一種藥物學專著. 簡稱本草經或本經…….”

2)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3. “神農是尊古之風的托名而已.”

3)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4. “本經經過魏晉的戰爭破壞與多次傳抄, 以很混亂, 且多錯誤, 故不能滿足當時臨床的需要.”

世代가 아닌 여러 世代를 통한 多數의 人物에 의하여 加筆되어졌다는 것이 定說이다⁴⁾. 그러나 本草經을 構成하는 基本 骨格은 여러 輯復者 들이 서로 다른 觀點에서 輯復을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一貫된 指向性을 가진 形式을 追求하고 있는 것 또한 事實이다. 그 理由는 輯復 當時에 引用된 書籍의 限界性을 意味한다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本草綱目·序例·歷代諸家本草』에서 보이는 本草經과 同一時代, 아니면 그보다 앞선다고 여겨지는 時代와 그 以後의 時代 즉, 前後 몇 백 년이라고 여겨지는 時代의 書籍에 關하여 論해 볼 것이다. 本 論文은 構造上 實驗이나 統計에 依存할 수 없다는 弱點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缺點의 重要한 要因 중의 하나는 『神農本草經』의 出現時期 與否가 아직은 確實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陶隱居以來로 많은 學者들이 자신의 見解를 밝히고 있지만 아직 決定的인 端緒가 不足하다.

最近, 中國의 尙志鈞, 王鈞默, 馬繼興, 王家葵 등의 人物들이 停滯되었던 『神農本草經』 誕生の 秘密을 많이 解消 시켜 주었으나 여전히 渴症이 解消될 段階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그렇지만 이 系統은 史學的 考證學的 金石學的인 分析이 必要한 作業인 만큼 短期間에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 앞으로 一貫되고 持續적인 研究가 並行된다면, 이러한 矛盾은 累積되는 結果物로 인하여 어느 정도 그 短點이 補完되어질 것으로 믿는다.

II. 本 論

1. 『神農本草經』의 出現

炎帝 神農은 神話時代의 人物로서 農業과 醫藥의 創始者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炎帝와 神農은 別個의 人物이며, 各 王朝가 바뀔 때 五行의 方位에 人物을 排定하기 爲하여 必要에 의해서 炎帝와 神農

을 合稱한 것이다⁵⁾. 神農을 비롯한 餘他 神格化된 人物들 亦是 事情은 이와 비슷하다. 특히 이러한 人物들은 中國王朝가 分裂 되었다가 統合되어지는 過程에서 이들에 대한 傳說과 神話는 무수히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狀況은 當時代의 時代的 潮流였다고 보여진다⁶⁾. 『淮南子』 「修務訓」篇을 보면 이러한 狀況이 잘 描寫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⁷⁾. 더욱이 魏晉代 이후에는 三皇五帝를 傳說에서 歷史로 編入하는 作業이 심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였다⁸⁾.

『神農本草經』에 관한 記錄으로 가장 有名한 것 중의 하나는 陶隱居가 『證類本草·卷一』에서 말한 “이 冊은 『素問』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後世의 사람들이 더욱 글을 덧대었다. …… 本草經에 보이는 郡縣名은 後漢代의 名稱이므로, 仲景이나 元化 등이 記錄한 것으로 보인다. ……” 라고 한 것이다⁹⁾. 이러한 指摘은 陶弘景의 博學多識한 面貌를 確認할 수 있

5) 鄭燦學. 五帝神話의 形成과 漢代의 受容樣相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2005. p.48. “……그러나 炎帝라는 이름은 漢代에 이르러 神農이라는 이름과 합쳐지며 그 神格에 커다란 變化를 일으키게 된다……”

6) 鄭燦學. 五帝神話의 形成과 漢代의 受容樣相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2005. p.14. “……黃帝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도의 형성은 점차 華夏(혹은 中華民族)의 境界를 확장시켰는데, 이러한 문화적 모방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對象을 모방하려는 욕구에서 出발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모방은 현실 정치의 지형과도 연관 되는데, 오직 漢代의 匈奴族만은 이러한 漢代의 制國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 하였으며, 北朝시대에는 오히려 漢族들이 鮮卑族을 모방하기도 하였다……”

7) 楊堅 點校. 淮南子. 長沙市. 岳麓書社. 1995. p.255. “通於物者, …… 察於辭者…… 世俗之人多尊古而賤今, 故爲道者必托之於神農黃帝而後能入說. 亂世暗主…….”

8) 鄭燦學. 五帝神話의 形成과 漢代의 受容樣相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2005. p.5. “司馬遷(기원전 145-기원전86)으로부터 비롯된 五帝의 확립은 이후 皇甫謐(215-282) 등의 보충을 거쳐 魏晉代 이후로는 역사적 사실처럼 취급되며 술한 전적에서 三황오제를 上古史의 한 佩이지로 언급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로서 三皇五帝에 대한 懷疑는 宋代의 기록에서부터 보인다. 宋代 劉恕는 『資治通鑑外紀』에서 六經은 모두 三皇·五帝·三王을 말하지 않았으며, 또 孔子시기에는 三皇五帝를 말하지 않았으며, 三皇五帝는 모두 周나라 말이나 秦 이후의 緯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9)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3. “此書應與素問同類, 但後人多更修飾之爾…… 本經所出郡縣乃後漢時制, 疑仲景, 化元等所記”證類本草·卷一. “化元은 元化의 誤記로 보인다.

4)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3. “……本經不時出自某一個人的著作……”

는 것이지만, 陶弘景은 다시 『本草經集注·序錄』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神農本經』이라는 冊을 당연히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여 後世醫家와 學者들에게 本草經을 ‘神農’이 지었다는 盲信을 가지게 한 張本人이기도 하다¹⁰⁾. 이러한 陶弘景의 二重 잣대는 本草經을 다시 神話時代로 소급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學者들이 陶弘景의 말을 引用하여, 本草經의 역사를 점점 上古時代로 認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當時에 이러한 結論을 類推할 수밖에 없었던 陶弘景에게도 苦悶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右往左往하는 陶弘景의 생각은 다음의 文章으로부터 드러난다. “秦의 皇帝가 焚書를 한 것에서 醫方, 卜術은 包含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전히 모두 남아있을 수 있었다”. 本草經은 醫方에 속하는 冊이었으므로 始皇帝 政의 焚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論理이다¹¹⁾. 즉 앞서 말한 陶弘景의 이중 잣대는, 陶弘景 자신이 確認한 本草經의 內容 중에 나타난 地名의 問題, 修飾의 問題에 의해 後漢代의 作品이라고 論理的으로 받아들여려고 하지만, ‘神農’은 上古時代의 人物이라는 固定觀念 때문에 苦悶을 하다가 적절한 妥協點으로 焚書에서 解決點을 찾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어찌 보면 當時의 그로서는 도저히 克復할 수 없는 論理的인 限界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점들은 비단 陶弘景 뿐만이 아니라 大多數의 人物들에게도 該當이 되는 事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馬王堆에서 『五十二病方』이 武威旱灘坡에서 『治百病方』 등의 醫方書 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本草經에 관한 疑問들이 조금씩 解消되고 있다.

『神農本草經』이 어느 시대, 누구에 의하여 쓰여 졌는지를 미루어 斟酌하려면, 孫星衍, 森立之 등이 輯復한 本草經의 內容과 文章을 記述하는 型式이 비슷하여야 하고, 神農과 관련된 神話部分을 과감히 도려내어야 하며, 本草經에 言及된 藥物들의 名稱을 比較해 보아서 많은 部分에서 類似한 면이 있어야만 한다¹²⁾.

古代 中國의 文體는 그 敘述 方式에 따라 여러 型式으로 나누어지는데, 『神農本草經』의 文體는 평이하고 담백한 敘述體이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비슷한 時期라고 推定되는 『內經』의 敘述型式은 對話體이며 고상하고 어려운 文章이 많이 등장한다. 이 점은 『內經』의 文章이 先秦時期의 文風을 쫓는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¹³⁾. 先秦時期 즉, 春秋戰國 시기에는 諸子百家들이 論駁하던 時期였으므로, 마치 西洋의 그리스 時代와 같이 서로 爭論을 즐기던 時期였음을 말해준다¹⁴⁾. 그러므로 博學多識을 追求해야 討論에서 有利하였고, 一貫性 있는 哲學體系가 있어야 하였으므로 形而上的인 哲學이 風味하였던 것이다. 著名한 東洋史學者인 미야자키 이치시다의 말을 빌리자면 “全國의 對立이 激化함에 따라 有用한 學術이 要求되고, 이에 따라 學問이 더욱 細分化되고 專門化 되어왔다. 여기에 兵家農家法家 등이 나타나 各其 兵法, 農業, 法律 등 專門의 知識을 提供하고 書籍을 敘述했다.……農業 知識은 原來인 생에 不可缺하여 『孟子』에도 農業을 專門化하여 神農의 學術을 하는 者가 보이고 있다. 이 神農氏가 實在한 皇帝처럼 생각된 것은 훨씬 後代의 일에 속한다.”라고 하였다¹⁵⁾.

그 이후 漢·武帝 때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政治 哲學의 要求에 의해서 『春秋』를 텍스트로 하고 陰陽五行說로 이를 理論化시킨 董仲舒의 天人感應說을 採擇하게 된다¹⁶⁾. 本草經의 出現은 이러한 時代의이고 政治的인 흐름에 의한 結果의 產物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孫星衍의 主張처럼 여러 世代에 거쳐 加筆되었음을 合理的으로 參酌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孫星衍의 主張을 모두 따르자는 것도 아니다. 孫星衍의 主張에는 現實的으로 理解하지 못할 部分들이 많이

言, 廣雅, 諸子雜家, 則鳳卿增補之力俱多云, 陽湖孫星衍撰.”

13)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出版社. 2002. p.22. “內經用對話體, 文辭古奧, 尙存先秦遺風. 本草經則用敘述體, 簡約直白, 其爲漢人之作無疑.”

14) 미야자키 이치시다(宮崎市定) 著. 中國史. 서울. 역민사. 1997. p.91.

15) 미야자키 이치시다(宮崎市定) 著. 中國史. 서울. 역민사. 1997. p.93.

16) 金東敏. 董仲舒 春秋學의 天人感應論에 대한 考察. 東洋哲學研究. 36. p.318, 321, 329, 331.

10)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出版社. 2002. p.14. “舊說皆稱神農本經, 余以爲信然”

11)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出版社. 2002. p.13. “秦皇所焚, 醫方卜術不預, 故猶得全錄.”

12) 魏吳普等述, 孫星衍, 孫馮翼輯. 神農本草經. 北京. 山西科學出版社. p.7. “……引據諸書, 本之毛詩, 爾雅, 說文, 方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쳤을 것이라는事實만을 認定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本草經에는 藥物을 上品 120種, 中品 120種, 下品 125種으로 나누었다는 記錄이 여러 文獻을 통하여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輯復者들은 이 記錄을 根據로 하여 『證類本草』, 『本草綱目』의 「序列目錄」 등의 內容을 토대로 365가지의 藥物을 맞추려고 努力하였으나, 個中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王子接 같은 輯復者들도 있었다¹⁸⁾. 그들 역시 나름대로 理由가 있었는데, 藥物이라는 것을 365가지로 限定짓는다는 것 자체가 語不成說이라는 主張을 폈던 것이다. 물론 이런 辨明도 一理는 있지만, 當時의 社會風潮를 看過한 主張이라는 생각이다. 當時에는 天人相應觀이 風味했고, 天地人으로 對比되는 政治哲學이 流行하던 時期였다. 『本草綱目』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基本的인 事物을 維持하고자 하는 傳統이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 以前까지는 어느 정도 本草經에서 비롯된 이러한 原則이 維持되고 있었다.

2. 本草綱目 內容 중 古籍에 관한 內容

(1) 『神農本草經』

『本草綱目』에서 『神農本草經』에 대하여 引用한 部分에 대한 資料를 引用하여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本草綱目·序例·歷代諸家本草』의 神農本草經條의 內容을 보면,

“神農本草經, 掌禹錫曰, 舊說本草經三卷, 神農所作, 而不經見, 漢書藝文志亦無錄焉. 漢平帝紀云, 元始五年, 舉天下通知方術本草者, 所在輶傳遺詣京師. 樓護

傳稱, 護少誦醫經本草方術數十萬言. 本草之名蓋見於此. 唐李世勣等以梁七錄載神農本草經三卷, 推以爲始. 又疑所載郡縣有後漢之名, 似張機華佗輩所爲. 皆不然也. 按淮南子云, 神農嘗百草之滋味, 一日而七十毒. 由時醫方興焉. 蓋上世未著文字, 師學相傳, 謂之本草. 兩漢以來, 名醫益衆, 張華輩始因古學附以新說, 通爲編述. 本草由是見於經錄也. 寇宗奭曰, 漢書雖言本草, 不能斷自何代而作. 世本淮南子雖言神農嘗百草以和藥, 亦無本草之名. 惟帝王世紀云, 黃帝使岐伯嘗味草木, 定本草經, 造醫方以療衆疾. 乃知本草之名, 自黃帝始. 蓋上古聖賢, 具生知之智, 故能辨天下品物之性味, 合世人疾病之所宜, 後世賢智之士, 從而和之, 又增其品焉. 韓保昇曰, 藥有玉石草木蟲獸而云本草者, 爲諸藥中草類最多也.”¹⁹⁾

『神農本草經』에 관하여 李時珍은 本人의 意見을 主張하는 대신에 本草經에 대하여 논했던 各家의 說을 引用하여 本人의 見解를 대신하고 있다. 本文 中에서 北宋의 地理學者이자 醫學者였던 掌禹錫의 主張을 눈여겨 볼 必要가 있다고 여겨진다. 掌禹錫은 1057년(嘉祐2年) 皇帝의 命을 받아 林億, 蘇頌, 張洞 등의 人物과 『開寶本草』를 藍本으로, 『嘉祐補注神農本草』 二十卷과 『圖經本草』 二十卷을 撰述한 人物이다²⁰⁾. 이렇게 皇命에 의한 執筆을 하기 위해서는 資料의 확보를 위하여, 그가 本草經을 구하려 必死의 努力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斟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漢·平帝 때 全國에 命을 내려 方書, 本草와 관련이 있는 書籍을 모두 모아 首都로 보내라고 하였었다. 물론 漢·平帝는 前漢末期(紀元前 1년~ 紀元後 5년)의 어린 皇帝로서 外戚인 王莽에 의하여 政治가 左之右之 되던 時期였기 때문에 政治的 不安은 있었지만 아직 體制가 瓦解됐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 書籍들 中에는 本草經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漢書藝文志』에는 本草經의 目錄이 없고, 唐의 書籍인 『梁七錄』에는 『神農本草經』 세 권이 보인다고 하였다. 『漢書藝文志』는 前漢時代에 있던 冊의 목록을 적은 冊으로서 史料的 價値가 매우 높은 書籍이

17)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02. p.16. “清·孫星衍, 孫馮翼이 合本하여 執筆한 本草經은 제목이 魏·吳普 등이 기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孫氏는 自序에서 여러 사람이 쓴 內容이 혼재되어 있다고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이르길 ‘宋에서 전해진 黑白書(宋代의 大觀本草를 가리킴)는 白書는 本草經이고, 黑書는 別錄이나, 실재로는 陶弘景이 손수 써넣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르길, ‘梁代 이전으로부터, 神農, 黃帝, 岐伯, 雷公, 扁鵲 모두 각각 冊이 있었는데, 吳普가 이것을 보았다(魏·吳普見之).’라고 하였다.”

18) 王鈞默, 王恒芬, 神農本草經校證. 서울. 吉林科學出版社 (醫聖堂 影印本). 1988. p.622. “……萬物皆可以爲藥, 豈特神農本草經以三百六十四種爲定數乎?!…….”

19) 明·李時珍, 本草綱目 校點本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

20)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497.

다²¹⁾. 漢·成帝 때 儒書가 焚書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劉向에게 명하여 天下의 儒書를 모으고 目錄을 만들라고 指示하여 『七略』을 執筆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劉向은 이를 完成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劉歆이 哀帝 때에 完成하였다. 이것이 中國 最初의 圖書目錄인 『七略』이다²²⁾. 이 『七略』의 內容을 그대로 옮긴 것이 『漢書藝文志』이고, 『七略』의 「方技略」篇에 醫經, 經方, 房中, 神仙 등 醫術과 관련된 書籍의 목록이 있었다. 이것을 班固가 『藝文志』에 옮긴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이 書籍에 本草經의 目錄이 없다면, 班固의 시절에는 『神農本草經』이나 『神農本草經』을 指稱하는 本草經이라는 冊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 唐의 時代에 이르러 비로소 『梁·七錄』이란 冊子에 『神農本草經』 3卷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 외 寇宗奭이나 韓保昇의 意見은 큰 意味가 없다고 보여진다.

(2) 『名醫別錄』

『本草綱目』에서 말하는 『名醫別錄』에 대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²³⁾.

“李時珍曰, 神農本草經分三品, 計三百六十五種, 以應周天之數, 梁陶弘景復增漢魏以下名醫所用藥三百六十五種, 謂之名醫別錄, 凡七卷, 首敘藥性之源²⁴⁾, 論病名之診, 次分玉石一品, 草一品, 木一品, 蟲獸一品, 果菜一品, 米食一品 有名未用三品, 以朱書神農, 墨書別錄, 進上梁武帝. 弘景字通明, 宋末爲諸王侍讀, 歸隱句曲山 ……”²⁵⁾.

『中醫大辭典』에 의하면, “『名醫別錄』은 ‘別錄’으로

간략하게 부르기도 한다. 輯者는 陶氏라는 說도 있고, 佚名하였다는 說도 있다. 대략 漢末에 成書되었다. 別錄은 秦漢醫家들이 『神農本草經』을 基礎로 하여 藥性和 效能 그리고, 새로운 藥의 品種을 追加하였다. 本書는 歷代醫家들이 끊임없이 모은 것이기 때문에 『名醫別錄』이라고 稱하는 것이다. 原書는 일찍이 없어졌고, 梁陶弘景이 『本草經集註』을 撰注할 때 『神農本草經』의 365가지 藥物을 收錄하는 동시에 『名醫別錄』의 365種 藥物을 모아서 收錄하였는데, 『名醫別錄』의 기본적인 內容은 지금까지 保存되어 있다. 그 佚文은 『證類本草』, 『本草綱目』 등에 보인다.” 라고 『名醫別錄』을 설명하고 있다²⁶⁾.

위의 內容을 근거하여 보면, 두 가지 사실을 推論할 수 있다. 첫째 李時珍에 의하면 漢魏 이후 名醫들이 사용하던 365가지 藥物을 本草經과 合本한 것이고, 그 冊은 일곱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선 藥物의 性質을 말하고, 病名의 診斷을 논하고, 다음으로 玉石, 草, 木, 蟲獸, 果菜, 米食, 有名未用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本草經의 內容은 붉은 글씨로 쓰고 別錄의 內容은 검은 글씨로 記載하여 梁·武帝에게 獻上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朱書와 墨書의 전통은 宋代까지 이어져서 『證類本草』등도 陶弘景의 獨創적인 아이디어를 따랐다. 두 번째로는 陶弘景이 『本草經集註』를 撰하기 이전에 이미 『名醫別錄』의 原本이 存在하고 있었을 可能性이다. 李時珍은 本草經에 言及된 藥物의 數는 ‘應天之數’라고 정확하게 天應思想을 指摘하고 나서, 陶弘景 이전에 이미 『名醫別錄』이라는 書籍이 存在하였음을 言及하고 있다. 一說에는 本草經亦是 陶弘景의 作品이라는 說도 있지만 이러한 主張은 證據가 不足하고 臆測이 甚하다고 생각된다.

王鈞默은 主張하기를 陶注本經, 別錄을 根據하여 보면 本草經의 藥物의 수는 각 365種으로 合計는 730種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唐本草』에서 말해주는 具體적인 숫자는 本經 361種, 別錄 182種, 有名未用 193種, 合計가 736가지이다. 또, 『證類本草補注』 「總序」에서 말하는 바에 根據하면, 本經 360種, 別錄 182種, 有名未用 194種 合計 736가지이다²⁷⁾. 『唐本草

21) 李弘植 編者. 韓國史大辭典 下卷. 서울. 1997. p.2017. “中國 前漢의 正史. 後漢의 班固가 지음. ……漢書의 體制 중 藝文志, 地理志는 班固의 獨創으로 後世의 史料의 가치가 크다.”

22) 마쯔마루 미찌오 외 4인. 중국사개설.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1. p.126.

23) 明·李時珍. 本草綱目 校點本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 “名醫別錄. 據燉煌殘卷本·本草集註第一·序錄, 應作本草集註.”

24) 明·李時珍. 本草綱目 校點本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 “源, 燉煌殘卷作‘本源’, 大觀, 政和本草作‘源本’. 政和本草繫‘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之簡稱, ……”

25) 明·李時珍. 本草綱目 校點本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1-2.

26)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601.

』에서는 本經 361種, 別錄 369種이고, 古代로부터 소위 “365種, 法365度, 一度應一日” 으로 象周天의 說法이다. 즉 “本經은 4種의 藥物을 別錄에서 混入한 것이다.” 라고 王鈞默은 말하고 있다 28).

그러므로 確言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內容들에 根據하여 보자면 本草經의 藥物의 數는 361가지인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고, 365라는 數가 周天 數字 이므로 나머지 4가지 藥物은 別錄에 더하여 369種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3) 『桐君采藥錄』

『本草綱目』에서 言及하는 『桐君采藥錄』에 대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時珍曰, 桐君, 黃帝時臣也. 書凡二卷, 紀其花葉形色, 今已不傳, 後人又有四時采藥, 太常采藥時月等書.” 29).

『中醫大辭典』에 의하면, “桐君은 上古時代의 藥學家이다. 確實하지는 않지만 黃帝의 臣下일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藥을 캐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採藥錄』 등의 著書가 있으며, 藥物의 性味와 作用 등에 대하여 敘述한 것이다. 原書는 옛적부터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30).

顏正華의 『中藥學』에서는 采藥錄에 대하여 이렇게 敘述하고 있다. “桐君은 傳說上 黃帝의 臣下이다. 李時珍이 이르기를 ‘書凡二卷이라 紀其花葉이오 形이오 色이오 今已不傳이라’고 하고서, 이 冊은 專門的으로 藥材를 採集하는 藥用植物의 專門書籍이다. 이와 비슷한 書名이 『隋志』, 『兩唐志』에 모두 실려 있다. 더욱이 日本 ‘見在書目錄’ 중에 ‘桐君藥錄’이 있으므로, 이 冊은 일찌감치 예전에 日本으로 흘러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였다 31).

27) 王鈞默, 王恒芬 輯著. 서울. 神農本草經校證. 吉林科學出版社(醫聖堂 影印本). 1988. p.20.

28) 王鈞默, 王恒芬 輯著. 서울. 神農本草經校證. 吉林科學出版社(醫聖堂 影印本). 1988. p.21. “從本草開始, 本經三百六十一種, 別錄三百六十九, 按古代所謂‘三百六十五種, 法三百六十五度, 一度應一日.’以象周天的說法, 則本經有四種混入別錄.”

29) 明·李時珍. 本草綱目 校點本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

30)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220.

李時珍의 말에 의하면 黃帝의 臣下인 桐君이 쓴 冊은 두 권인데 當代에는 전하여 지지 않고, 後人이 쓴 同名의 書는 四季節에 採藥을 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農家月令歌』 같은 성격을 가진 책이라고 보여 진다. 黃帝의 臣下라 稱하는 것을 보면 托名을 한 것이 分明하다고 여겨지고, 後人이 撰했다는 비슷한 名稱의 冊은 隋나라 以前에 이 冊이 存在하고 있었을 可能性은 매우 높았다고 여겨진다.

(4) 『雷公藥對』

『本草綱目』에서 『雷公藥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禹錫曰, 北齊徐之才撰. 以衆藥名品, 君臣, 性毒, 相反及所主疾病, 分類記之, 凡二卷. 時珍曰, 陶氏前已有此書, 吳氏本草所引雷公是也. 蓋黃帝時雷公所著, 之才增飾之爾. 之才丹陽人, 博識善醫, 歷事北齊諸帝得寵, 仕終尚書左仆射, 年八十卒, 贈識徒, 封西陽郡王, 諡文明, 北史有傳.” 32).

『中醫大辭典』에 의하면, 『藥對』는 “冊 이름으로 『雷公藥對』를 가리키며 北齊의 徐之才가 撰한 것이다. 冊의 제목이 『嘉祐補注本草』 所引書傳에 보이고 두 권이다. 이 冊은 일반적으로 『雷公藥對』를 기초로 하여 더하거나 修訂을 加하여 完成된 것이라고 여겨고 있다. 『嘉祐本草』에서는 이 冊을 稱하기를 ‘以衆藥名品으로 君臣佐使하고 性毒相反及所主疾病하며 分類而記之하여 …… 其言治病으로 用藥最詳이라.’라고 하였다 33).

한편, 雷公에 대하여 『中醫大辭典』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雷公은 傳說로는 上古時代의 醫家로서, 黃帝의 臣下라고 전해지고 있고, 鍼灸에 精通하였다고 한다. 옛 傳說에 의하면 黃帝와 雷公이 서로 醫에 대한 논의를 하여 醫學의 틀을 創始하였다고 한다. 『內經』 중 「著至教論」, 「示從容論」, 「疎五過論」, 「徵邪失論」 등 여러 편에서 모두 黃帝와 의논하여 醫藥의 틀을 정하여 썼다는 傳說을 反映시

31)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3.

32) 明·李時珍. 本草綱目 校點本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

33)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042.

킨 것에서 由來한 것이다. ② 南北朝 시기의 醫藥學 人인 雷敷를 指稱한다. 『雷公炮制論』의 著者. 原書는 亡失되었으나 후대의 의서에 內容이 조금씩 남아있다.”라고 하였다³⁴⁾.

顏正華의 『中藥學』에서는 藥對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雷公藥對』는 北齊의 徐之才가 撰한 것이다. ‘以衆藥名品으로 君臣佐使하고 性毒으로 相反及所主疾病하며 分類記之라 凡二券으로 舊本草多引以爲據러니 其言治病用藥最詳이라.’(『證類本草卷一』). 李時珍은 ‘陶氏(弘景) 이전에 이미 이 冊이 있었고, 『吳氏本草』는 『雷公本草』에서 引用한 것이다. 어쩌면 黃帝時期的 雷公의 著作일지도 모른다. 之才가 양을 늘리고 修飾하였을 뿐이다.’(『本草綱目序例卷一』). 原書는 이미 亡失되었으며, 그 內容은 『證類本草』, 『本草綱目』 등에 모두 引用되어있다.”라고 하였다³⁵⁾.

『中醫大辭典』에서 徐之才를 설명하기를, “徐之才는 492~572년의 人物로, 南北朝 시기 北齊의 醫家이다. 字는 士茂이다. 丹陽(현재 江蘇省 鎮江) 사람이다. 世醫 집안의 出身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雄이다. …… 天文學과 醫藥學을 相當한 水準까지 研究하였으며, 藥劑學에 卓越함을 보였다. 『雷公藥對』와 『藥對』를 修訂하였으며 …… 『家傳秘方』, 『徐王八世家傳效驗方』, 『小兒方』 등의 著作이 있으나 傳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³⁶⁾.

위의 內容을 종합하여 보면 雷公이 『藥對』를 지었다는 말은 托名이거나 傳說일 수는 있겠으나, 『藥對』라는 冊은 徐之才가 生存해 있을 무렵인 南北朝 時期 以前에 分明하게 存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吳氏本草』가 이 冊을 引用하였다는 말도 그냥 看過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孫星衍이 輯復한 『神農本草經』에는 다른 輯復本과는 다르게 ‘魏·吳普述’이라고 銘記되어 있기 때문이다. 孫本은 藥의 性味를 설명하고, 主治를 설명하고, 別名을 설명한 다음에, “吳普曰, 名醫曰, 案范子計然曰, 案說文云, 案司

馬相如賦, 案抱朴子金丹篇云……” 등의 敷衍 說明을 하고 있다³⁷⁾. 물론 이렇게 記述한 內容이 孫星衍의 創作일 수도 있으나 孫星衍 역시 많은 底本을 보고 輯復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參考할만한 價値를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5) 『李氏藥錄』(李當之本草)

『本草綱目』에서는 『李氏藥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比較的 簡略하게 說明하고 있다.

“保昇曰, 魏李當之, 華佗弟子. 修神農本草三卷, 而世少行. 時珍曰, 其書散見吳氏陶氏本草中, 破有發明.”³⁸⁾.

顏正華의 『中藥學』에서는 李氏藥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李當之藥錄』은 다른 이름으로 『李氏藥錄』, 『李當之本草』라고도 부른다. 韓保昇은 이르기를 ‘魏李當之는 華佗 弟子로 修神農本草三卷이나 而世少行이라.’ 라고 하였다. 李時珍이 이르기를 ‘其書는 散見吳氏陶氏本草中하니 破有發明이라.’라고 하였다. (『本草綱目序例卷一』). 原書는 대략 北宋 초기에 失傳되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³⁹⁾.

『中醫大辭典』에서는 李當之에 대해 설명하기를 “三國時期的 藥學家이다. 李謐이라고도 한다. 著名한 外科學家인 華佗의 弟子이다. 本草學에 대하여 상당한 研究를 하였으며, 『李當之藥錄』, 『李當之藥方』, 『李當之本草經』을 著述하였다. 이러한 藥物學 著作은 비록 모두 散佚되었지만 어떤 內容들은 後世 藥物學 著作들에 引用되어졌다.”라고 하였다⁴⁰⁾.

馬繼興이 主編한 『神農本草經輯注』에서는 『李當之藥錄』은 2세기경 『神農本草經』의 集注本이라는 說이 있다고 하였다. 이 說에 의하면 後漢時期 李當之라는 人物이 쓴 一種의 註釋書라는 것이다. 이 冊이 記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隋書·經籍志』에서 『梁·七錄』을 引用한 바에 따르면 여섯 권이거나 한 권의

37) 魏·吳普等述. 孫星衍, 孫馮翼輯. 神農本草經. 北京. 山西科學出版社. pp.6-8.

38) 明·李時珍. 本草綱目 校點本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

39)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4.

40)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19.

34)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600.

35)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3.

36)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267.

로 되어있고,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梁代 時期에 이미 두 種類의 다른 卷數를 가진 傳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唐書·經籍志』에서 이 冊을 ‘李氏本草三卷’ 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李當之本草』는 宋 時期에 이미 亡佚되었지만 北宋 以前の 古籍에서 이 冊의 佚文을 引用한 內容이 보인다고 하였고, 陶弘景의 글에서는 ‘李云……, ……李當之此說.’ 이라는 表現이 보인다고 하였으며, 여러 書籍들의 內容을 綜合해보면 藥錄은 세 권 또는 두 권일 것으로 보인다고 主張하였다. 그리고 『李當之本草』의 佚文은 총 131條 83種의 藥名에 이르고 있다. 라고 설명하였다⁴¹⁾.

위의 內容에 의하면 李當之는 華佗의 直系弟子로서 『神農本草經』 세 권을 編纂하였거나 修訂하였으며, 世上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藥學에 관련된 여러 가지 醫書를 著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內容은 『吳普本草』, 『神農本草經集註』, 『名醫別錄』에 引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설명되어 있는 內容이 破格的일 뿐만이 아니라 內容이 出衆하였고 하였다. 그렇다면 李當之는 吳普의 直系로서 先輩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疑問點이 생긴다. 華佗가 너무 有名했던 人物이었기에 그의 弟子로 여겨지는 李當之, 吳普 등도 그 有名稅를 받았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太平御覽』등에 그들의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確實히 實存하며 活動하였던 人物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吳普의 경우에는 確實한 華佗의 弟子라는 根據가 있는 반면, 李當之의 경우는 그러한 根據文獻이 보이지 않는다. 華佗의 生年은 確實하지 않지만 208년에 曹操에 의하여 죽은 당했으므로, 末年에 받아들인 弟子라고 하더라도 3세기 中葉까지는 살았을 것이다⁴²⁾. 만약 華佗와 비슷한 年輩였다면 2세기 중반이나 末葉부터 活動을 하였을 것이므로, 『李當之本草』나 『吳普本草』는 『神農本草經』의 原本에 相當히 近接하거나, 어떠한 方式으로든지 影響을 주거나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尙志鈞은 1960년에 쓴 論文에서 吳普는 魏의 사람이 맞고 李當之는 晉人이라고 主張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 情況이 설명 가능하므로, 尙志鈞의 意見은 충분히 參照할만한 價値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³⁾.

(6) 『吳氏本草』(吳普本草經)

『本草綱目』에서 『李氏藥錄』에 대하여 說明하는 內容은 比較的 簡略하다.

“保昇曰, 魏吳普, 廣陵人, 華佗弟子. 凡一卷. 時珍曰, 其書分記神農黃帝岐伯桐君雷公扁鵲華佗李氏所說性味甚詳, 今亦失傳.”⁴⁴⁾.

顏正華의 『中藥學』에서는 『吳普本草』는 宋의 掌禹錫이 『嘉祐補注本草』에서 引用한 書傳 中에서 말하기를 “魏廣陵人으로 吳普撰이라 普는 華佗弟子로 修神農本草441種하고 唐經籍志尙存六卷으로 今廣內不復有라 惟諸子書를 多見引據하여 其說是 藥性寒溫五味하고 最爲詳悉이라.” 라고 하였다⁴⁵⁾. 이 內容에 의하자면 『吳普本草』는 『神農本草經』을 補充한 것이다. 唐代에도 여전히 이 冊이 流行했던 것으로 보이다가, 宋代에 이르면서 原書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內容은 흩어져 後世의 各家와 비슷한 種類의 冊 中에서 그 內容이 보인다⁴⁶⁾.라고 하였으며 『中醫大辭典』에서 吳普를 설명하기를 “三國時代의 醫家이다. 廣陵(현재의 江蘇省 揚州) 사람이다. 著名한 外科醫家인 華佗의 弟子이다. 華佗가 吳普에게 ‘五禽戲’를 傳授해 주었고, 吳普는 이에 따라 身體鍛鍊을 實踐하여 長壽하였다. 著書로는 『吳普本草』, 『華佗藥方』 두 가지가 있고, 『吳普本草』는 三國時代 以前의 藥物 441種을 收錄하였으나 오래전에 散逸되었고, 그 內容은 後世醫家의 本草書 中에 內容이 보인다. 宋 『太平御覽』中에 『吳普本草』의 藥物들을 많이 모아 整理해 놓았다. 『華佗藥方』은 華佗가 患者를 治療할 때 썼던 方劑를 收集하여 編成한 것이다. 이 역시 傳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⁴⁷⁾. 이러한 證據로

43) 尙志鈞. 吳氏本草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p.101. “魏晉以來, 吳普李當之. 把這句話割裂地研究, 說吳普是魏人, 而李當之是晉人.”

44) 明·李時珍. 本草綱目 校點本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

45)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4.

46)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4.

41) 馬繼興 主編. 本草經輯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905-916.

42)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78.

보아서 吳普에 대한 記錄은 信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馬繼興은 그의 冊 『神農本草經輯注』에서 『吳普本草』는 『吳氏本草經』이라고도 부르는데 紀元後 2世紀에서 3世紀 사이에 쓰여진 것이다. 『漢書』 卷112 「華佗傳」에 魏·明帝 때(227年~239年) 吳普는 90歲까지 살았으며 그가 태어난 때는 紀元後 130年 境의 後漢 시기로 斟酌된다. 原書는 여섯 권(『隋志』, 『唐志』)이고 原書는 南宋 時期에 이미 보이지 않으며 佚文의 引用은 301條 217種의 藥物에 달한다. 라고 하였다(48).

위의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吳普는 華佗의 弟子이고, 한 권, 또는 두 권의 冊을 著述하였으며, 그 冊의 內容은 黃帝, 岐伯, 桐君, 雷公, 扁鵲, 華佗 등의 內容을 收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當時의 冊이란 比단이나 木簡 竹簡이 主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 龐大한 內容을 한 두 권의 冊으로 남기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後世의 사람들이 轉抄하였거나, 그 內容의 一部分를 옮겨 적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本草經의 內容에 76가지의 藥物을 더 追加하여, 各家의 說 中에 特異한 事項이나 注意事項을 銘記하였다고 하며, 그 內容은 지금도 傳하고 있다(49). 그 외에도 藥物의 產地를 記述함에 있어서 本草經보다 精巧하였다고 하며 植物의 生態, 藥物의 生態, 採集時間, 加工炮制, 配伍禁忌 등의 內容 등이 包含되어 있다고 한다(50). 이러한 內容으로 미루어 볼 때 『吳普本草』의 內容은 상당히 精密하였으며 『神農本草經』을 基礎로 하여 그 內容을 크게 發展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最少한 『吳普本草』 이전에 『神農本草經』이 存在하고 있었음을 確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三國志』本傳의 記錄에 의하면 華佗는 일찍이 그의 弟子 吳普에 대하여 “人體는 欲得勞動이니 但不當使極耳라 動搖하면 穀氣得消하고 血脈流通하며 病不得生하니 譬猶

戶樞不朽가 是也라 是以로 古之仙者는 爲導引之事하니 熊經鴟顧하고 引挽腰體하며 動諸關節하여 以求難老라 吾有一術하니 名五禽之戲라 一曰虎오 二曰鹿이오 三曰熊이오 四曰猿이오 五曰鳥니 亦以除疾하니 并利蹄足하니 以當導引이라고 하였다.”(51). 이러한 內容에 根據하여보면, 吳普에 대한 實存 與否와 華佗와의 關係는 充分히 說明이 되는 것이다.

現在 『吳普本草』는 尙志鈞, 焦循에 의하여 輯復되어 輯復本이 있다(52).

總括하여 말하자면, 『本草綱目』에 記錄되어 있는 『神農本草經』, 『名醫別錄』, 『桐君采藥錄』, 『雷公藥對』, 『李當之本草』, 『吳普本草』에 관한 內容은 비교적 詳細하다고 여겨진다. 盧復은 本草經을 輯復하는 過程에서 『本草綱目』의 「采集諸家本草藥品總數」, 「神農本草經名例」, 「神農本草經目錄」등을 參照하였다(53). 그러나 學者들에 의하면, 『本草綱目』의 藥物目錄에는 誤謬가 적지 않다고 하며, 本草經으로부터 綿綿히 내려오던 上·中·下品의 藥物品目이 많은 部分에 잘못된 점이 있어 보이고, 藥物의 名稱이나 分類 方法 등을 멋대로 바꾸어 以前의 本草 原形을 찾기 힘들게 하였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점은 李時珍이 參照한 書籍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轉抄 작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나, 李時珍 이후에 발견된 資料는 參照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資料의 不足이 原因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54). 李時珍을 批判하는 사람들 中에 儒家이자 金石學者인 孫星衍은 자신이 쓴 輯本序에서 이르기를 “明·李時珍은 『本草綱目』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 단지 『大觀本

51)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 編著.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185.

52)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年. p.4. “現有尙志鈞等輯復本(人民衛生出版社1987年排印)和焦循輯復本(手抄本, 畫一部存上海圖書館).”

53)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 編著.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182. “明代的 醫生으로 字는 不遠이며 錢塘人(지금의 浙江 杭州)이다. 醫學에 精通하고 佛敎學(大乘)에도 兼通하였다. 藥園臆草, 醫種子를 撰述하고 神農本草經 等書를 輯錄하였다. 그의 子 盧之頤도 當地의 名醫였다. 그들은 醫學上 佛敎思想의 影響을 상당히 反映하였다.”

54) 王鈞默, 王恒芬 輯著. 神農本草經校證. 서울. 吉林科學出版社(醫聖堂 影印本). 1988. p.616. “唐本草中土舊佚李時珍修綱目時未之見.”

47)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49.

48) 馬繼興 主編. 本草經輯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857-860.

49)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4. “如石龍芮, 神農, 苦平. 岐伯, 酸. 扁鵲, 李氏. 大寒. 雷公, 鹹, 無毒.”

50)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4.

草』에서 완벽하지 못한 文章들만을 取한 데다가 妄靈되어 글을 늘리고 混亂을 주었기 때문에 後學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였다.”라고 하였다⁵⁵⁾. 또 醫家인 丹波元堅은 “내가 옛 本草書를 復輯하려고 하다가 『證類本草』를 보게 되었다. 李時珍의 『本草綱目』은 根據도 없이 虛荒된 內容이 있는가 하면, 妄靈되어 內容을 바꾸었다.…….”라고 하였다⁵⁶⁾. 顧觀光 역시 李時珍을 批判하였는데 그 內容을 보면, “……李時珍의 『本草綱目』을 世間에서는 모든 것을 集大成하였다고 稱하는데, 지금 내가 考證을 하여보니……이처럼 瀕湖의 『本草綱目』은 錯誤가 많으니, 著書가 어렵고 책을 바로 잡기도 어려워 本草經을 復原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⁵⁷⁾. 清代醫家인 趙學敏은 자신의 著作인 『本草綱目拾遺』에서 “李時珍은 『本草綱目』을 쓰면서……牧丹皮가 곧 鼠姑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였다⁵⁸⁾. 그러므로 『本草綱目』의 序目を 根據로 하여 輯復 作業을 한 盧復의 『神農本草經』은 誤謬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神農本草經』, 『名醫別錄』, 『桐君采藥錄』, 『雷公藥對』, 『李當之本草』, 『吳普本草』에 관한 李時珍의 글은 散佚된 古代醫藥書籍을 研究하는데 있어 端緒로서 充分한 價値가 있다. 왜냐하면 後代의 文獻 大部分이 李時珍의 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現代의 文獻에까지 影響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55) 王鈞默, 王恒芬 輯著. 神農本草經校證. 서울. 吉林科學出版社(醫聖堂 影印本). 1988. p.4. “孫星衍輯本序中說, 明李時珍作本草綱目, 其名已愚, 僅取大觀本割裂舊文, 妄加增駁, 迷誤後學.”

56) 王鈞默, 王恒芬 輯著. 神農本草經校證. 서울. 吉林科學出版社(醫聖堂 影印本). 1988. p.5. “余嘗竊欲復古本草之舊, 仍取證類本草讀之, 李時珍綱目之杜撰妄改不足據矣.” 又說 “綱目序例載本草經上藥百二十品, 中藥百二十品, 下藥百二十五品目錄, 明盧復醫種子本依之, 妄意條析, 以充本經三卷之數, 則潛妄不足據矣.”

57) 王鈞默, 王恒芬 輯著. 神農本草經校證. 서울. 吉林科學出版社(醫聖堂 影印本). 1988. p.4. “顧觀光也曾在序中評述說, 李氏綱目世稱爲集大成, 以今考之, 本經而誤注別錄者四種……本經拆出而誤注他書者二種……原無經文而誤注本經者一種……本經而經文混入別錄者三種……經文混入別錄而誤注別錄者六種……別錄混入經文而誤注本經四種……夫以瀕湖之博洽而舛誤至此, 可見著書難校書亦復不易.”

58) 王鈞默, 王恒芬 輯著. 神農本草經校證. 서울. 吉林科學出版社(醫聖堂 影印本). 1988. p.28. “瀕湖作綱目,……不知牧丹皮即鼠姑也.”

『本草綱目』은 『神農本草經』의 研究에 있어서 가장 먼저 參照를 해야 하는 文獻임에는 틀림없으나, 다른 文獻과의 對照를 통해서 그 眞僞를 가리는 것 또한 重要하다고 여겨진다. 清末의 學者 顧觀光은 綱目에 대해서 계속되는 苦悶을 털어놓으면서 歎息하며 이렇게 말했다. “『神農本草經』……『名醫別錄』……오늘 날 이 冊은 이미 亡失되었고, 그 根據로 삼는 것이 고작 綱目일 뿐이다.”라고 하여 資料의 不足을 慨嘆하였다⁵⁹⁾. 지금의 事情은 이보다 조금 나아진듯하지만 여전히 本草經을 완벽하게 復原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고, 若干의 缺陷이 있다고 하여 『本草綱目』을 無視할 수도 없다.

III. 結 論

『神農本草經』과 이와 비슷한 시기에 出現한 것으로 推定되는 本草書에 대하여 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班固의 著作인 『漢書藝文志』가 완성된 시기는 西紀 82年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神農本草經』은 西紀 82年 무렵까지는 存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2. 『名醫別錄』은 陶弘景의 著作이 아니고 『本草經集注』를 撰述할 때 參考했던 書籍으로 陶弘景 이전부터 오랜 세월 存在하고 있었다. 『本草經集注』는 本草經의 藥物 361種에 名醫別錄의 藥物 369種을 더한 것이다.

3. 『桐君采藥錄』은 두 가지의 同名異書로서 初期의 것은 亡失되었고, 後期의 것은 시기에 따른 藥物의 採集에 관한 內容으로 隋나라 이전에 이 冊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를 李時珍이 參考하였고, 日本으로 전해졌다.

59) 王鈞默, 王恒芬 輯著. 神農本草經校證. 서울. 吉林科學出版社. 醫聖堂 影印本. 1988. p.7.

4. 『雷公藥對』는 徐之才가 撰한 것으로, 그 이전에 原本으로 여겨지는 本이 있었고 이것을 吳普가 參照하였다. 그러므로 『藥對』라는 冊은 徐之才가 生存해 있을 무렵인 南北朝 時期 以前까지 分明하게 存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李當之本草』는 散佚되었으나 梁代 時期에 이미 두 종류의 다른 卷數를 가진 傳本이 있었고, 『神農本草經』의 集注本일 可能性도 있다. 李當之는 魏人이 아니고 晉人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太平御覽』 등에 그 證據가 보이므로 무시할 수 없으며 本草經과 相關이 있다고 여겨진다.

6. 『吳普本草』는 『李當之本草』와 마찬가지로 『太平御覽』 등에 記錄이 남아있으므로 本草經과 近接하고, 『吳普本草』 이전에 『神農本草經』이 存在하고 있었음은 確實한 것으로 여겨진다.

10. 王鈞默, 王恒芬. 神農本草經校證. 서울. 吉林科學出版社. 醫聖堂 影印本. 1988. p.4, 5, 7, 28, 616, 622.
11. 王利器 主編. 史記註譯. 西安. 三秦出版社. 1991. pp.2219-2221.
12. 李經緯, 林昭庚 主編. 中國醫學通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162.
13. 明·李時珍. 本草綱目, 校點本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 2, 3. pp.1-2.
14. 鄭燦學. 五帝神話의 形成과 漢代의 受容樣相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2005. p.5, 14, 48.
15. 李弘植 編著. 韓國史大辭典 下卷. 서울. 1997. p.2017.
16.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50, 578, 601, 719, 749, 1042, 1188, 1220, 1267, 1497, 1600.
17.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 編著.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168, 177, 182, 185. pp.153-154.

參考文獻

1. 甄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95.
2. 馬繼興 主編. 本草經輯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857-860, 905-916.
3. 미야자키 이치시타(宮崎市定) 著. 中國史. 서울. 역민사. 1997. p.91, 93.
4. 마쯔마루 미찌오 외 4인. 중국사개설.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1. p.126.
5. 尙志鈞. 吳氏本草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p.101.
6. 魏吳普 等述. 孫星衍, 孫馮翼 輯. 神農本草經. 北京. 山西科學出版社. p.7. pp.6-8.
7. 顏正華 主編. 中藥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3, 4.
8. 楊堅 點校. 淮南子. 長沙. 岳麓書社. 1995. p.255. pp.1-2.
9. 王家葵, 張瑞賢. 神農本草經研究.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02. p.13, 6, 18, 22, 39.

